발간자료

• **시황(파생):** 최근 외국인 선물 수급 동향은 현물 매수세 축소, 선물 순매도로 대응하며 지수 상승세를 제한. 20일 이동평균 미결제약정 추이 역시 감소, 기존 포지션을 축소하며 방향성 베팅을 유보하고 있는 관망세로 해석. 전체 프로그램 매매는 누적으로 전주 대비 증가. 주체별로 외국인 역시 순매수 기록하고 있으나, 전체 외국인 순매수 중 프로그램 매매를 제외한 액티브 성격의 자금은 1/8 옵션만기일 이후 매도 전환. 풋옵션 매수는 30일 누적 기준으로 전주 대비 소폭 증가. 콜옵션 행사가 구간별 순매수 감안시 다음 옵션만기일인 2월 12일까지 코스피 5,000pt 도달 후 외국인들의 포지션 변화가 단기 방향성의 변수. 해당 변곡점은 1/29 SK하이닉스, 애플, 아마존 실적 발표 전후 예상. 밸류에이션 상으로 코스피 5,000pt 달성 가능하나 12일 연속 상승에 대한 단기 과열 해소 필요, 5,000pt 이후 수급상 숨고르

(시황분석 김지현)

• **음식료 Indepth:** [내수 소비 전망] 2025년 자산가격 상승 효과와 낮은 기저로, 전년동기대비 반등 예상. 다만, 소비 취향의 파편화로 내수 소비 반등 국면에서도 주요 음식료 기업의 실질적 수혜는 제한적일 것. [중국 유통채널 동향] 할인점 업태 부진과 슈퍼마켓 점포 수 감소 등 구조적 부담 지속, 간식 전문점, 창고형 할인매장 등 성장 채널은 견조한 성장세 유지. [생산시설 증설 모멘텀] KT&G(1Q26), 롯데웰푸드(2Q26), 농심(4Q26), 오리온(4Q26), 삼양식품(4Q26). 이는 수요확대를 반영한 합리적 투자. [P/C 점검] 2026년은 전년 가격 인상과 원가 안정이 맞물린 이익 증가 예상되나, 가격인상효과 반영차이로 기업 개별적 접근 필요. [투자전략] 음식료 업종 최선호주로 KT&G, 차선호주로 오리온 제시

(음식료 이다연)

• **알테오젠 SPOT:** 알테오젠, GSK와 ALT-B4에 대한 기술이전 계약 체결. GSK 자회사 Tesaro가 보유한 PD-1 면역항암제 젬퍼리(dostalimab)에 SC 제형 개발 및 상업화할 예정. 플랫폼 타겟 1개 품목 기준으로 볼 때, 본 계약의 계약금 및 총 계약 규모는 작은 수준은 아님. 본 계약은 ALT-B4의 특허를 포함한 IP 전반에 대한 내부 검증이 완료되었음을 의미. ALT-B4는 RNA 치료제에서도 적용 가능성이 확인되고 있어, 향후 모달리티 확장 가능성이 높아질 전망

(제약/바이오 이지수)

• **더블유게임즈_BUY/7만원:** 소셜카지노의 하향 안정화 지속되는 중이며 캐주얼 게임의 외형 성장은 지속 중. 팍시게임즈의 경우, 마케팅비 비중을 70~80%로 유지하며 외형 성장 지속. 주가 상승을 위해서는 M&A를 통한 구조적인 성장증명이 필요

(인터넷/게임/레저 김혜영)

• **세아제강_BUY/19만원:** 컨센서스 하회하는 실적 기록. 건설 업황 부진과 가격 경쟁력 약화로 수출량 부진 동반 원인. 캐나다 라인파이프 공급과 신안우이 해상풍력 프로젝트 시작으로 2026년 판매량 증가 기대. 이외에도 강관가격 인상 기조, 반덤핑 효과 발현시 실적 개선, 북미에서의 ERW 강관 선호도 상승중인 점은 긍정적

(철강 이정우)

• **대한항공 SPOT:** 4Q25 별도 영업이익 4,131억원(-5% YoY), 컨센서스 14% 상회. 여객사업은 추석/연말 성수기, 단거리 노선 호조가 특징. 유난히 좋았던 화물사업은 AI발 긴급 수요 등 이벤트성 물량 발생. 2026년 투자포인트: 1) 하반기 시스템 통합 이후 기단 1.5배 확대, 글로벌 메이저 항공사 체급 확보, 2) 항공우주사업 매출 인식 본격화, 4조원 이상의 수주잔고 기반 성장 가시화. 투자의견 Buy, 적정주가 29,000원 유지

(운송/로봇 오정하)

Compliance Notice

당사는 본 자료를 기관투자가 등 제 3자에게 사전 제공한 사실이 없습니다. 자료 발간일 현재 해당 기업의 인수·합병의 주선 업무를 수행하고 있지 않습니다. 당사는 자료작성일 현재 본 자료에서 추천한 종목의 지분을 1% 이상 보유하고 있지 않습니다. 당사는 본 자료 발간일 현재 해당 기업의 계열사가 아닙니다. 당사는 동 종목에 대해 자료작성일 기준 유가증권 발행(DR, CB, IPO, 시장조성 등)과 관련하여 지난 12개월간 주간사로 참여하지 않았습니다. 당사는 상기 명시한 사항 외에 고지해야 하는 특별한 이해관계가 없습니다. 해당 기업의 주식 및 주식 관련 파생상품 등을 보유하고 있지 않습니다. 본 자료의 조사분석담당자는 어떠한 외부 압력이나 간섭 없이 본인의 의견을 정확하게 반영하여 작성하였습니다. 본 자료는 '나눔스퀘어'와 '아리따 글꼴'을 사용하여 작성하였습니다

투자등급 비율

BUY : 88.7%	HOLD : 11.3%	SELL : 0.0%

투자등급 관련사항

아래 종목투자의견은 향후 12개월간 추천기준일 종가대비 추천종목의 예상 기대수익률을 의미
- BUY: 추천기준일 종가대비 +15% 이상
- HOLD: 추천기준일 종가대비 -15% 이상~ +15% 미만.
- SELL: 추천기준일 종가대비 -15% 미만.

투자 의견이 시장 상황에 따라 투자등급 기준과 일시적으로 다를 수 있음
동 조사분석자료에서 제시된 업종 투자의견은 시장 대비 업종의 초과수익률 수준에 근거한 것으로, 개별 종목에 대한 투자의견과 다를 수 있음
- Overweight: 해당 업종 수익률이 향후 12개월 동안 KOSPI 수익률을 상회할 것으로 예상하는 경우
- Neutral: 해당 업종 수익률이 향후 12개월 동안 KOSPI 수익률과 유사할 것으로 예상하는 경우
- Underweight: 해당 업종 수익률이 향후 12개월 동안 KOSPI 수익률을 하회할 것으로 예상 경우

주) 업종 수익률은 위험을 감안한 수치